



20대 연령층(전문대학생) 결핵환자 발견사업

□ 사업대상

전문대학생 : 300,000명(전체 597,000명 중 약 50% 검진 목표로 함)

□ 사업기간

2006년 8월~2007년 1월(검진 실시 : 9월~12월)

□ 추진 배경

우리나라는 결핵유병률이 높은 후진국형을 보이고 있다. BCG 예방접종으로 인한 인공면역의 유효기간은 10~15년 정도로, 젊은 연령층은 결핵균에 자연적으로 노출되어 면역력을 획득하는 자연면역의 기회부족으로 집단면역력이 타 계층에 비해 낮으며,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20대 연령층은 결핵면역력이 약하여 결핵 소집단 유행 발생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.

이와 관련해 최근 몇 년간 동일한 사례의 출현은 증상(Symptom)의 호소력과 능동적 대응력이 약한 동 계층의 적극적인 환자발견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. 실제로 2005년도 결핵정보감시체계(KTBS)를 통해 집계된 연령별 신환자발생(신고)률을 보면 20대가 6,827명으로 전체의 19.4%를 차지하여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으며, 최근 20대 연령층 결핵 신환자 발생률이 증가하는 등 동 계층에 대한 결핵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. 이에 2010년까지 폐결핵 엑스선상 유병률을 0.3%(인구 10만 명당 300명)를 국가결핵관리사업의 목표로 잡고 집중적인 결핵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.

□ 기대효과

아직까지 전문대학 보건진료실의 기능이 미흡한 곳이 많으므로 대한결핵협회의 이번 결핵검진을 통해 체계적인 결핵관리를 받지 않고 있는 대학사회의 결핵확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다. 또한 2018년경 고령사회(14.3%) 진입과 현재의 20대 연령층의 결핵환자 증가는 국가적인 차원의 산업 생산 핵심인력들에 대한 국가 전염병관리에 허점발생 우려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대한결핵협회(결핵연구원)는 이번 검진을 통해 얻은 결과를 통계분석하여 보건복지부(질병관리본부) 및 교육인적자원부에 제공함으로써 국가결핵관리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.

□ 검진방법

검진형태 : 흉부 엑스선간접촬영으로 폐결핵(및 비결핵 흉부질환, 심장질환, 척추측만증 등 포함)을 조기 발견토록 한다.

검진방법 : 대한결핵협회가 보유한 흉부엑스선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한 30개 검진팀을 편성하고, 각 시·도지부(또는 권역별) 수검기관별 세부 일정을 수립하여 공문서로 수검기관의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1개월 전에 사전통보 및 협의하며, 일정에 따라 출장하여 검진을 실시한다.

촬영한 엑스선필름은 대한결핵협회 중앙현상소에서 현상 후 중앙 및 각 지부판독위원회에서 결핵전문의와 진단방사선 전문의 및 동등한 임상경력의 일반전문의 2인이 복수판독한 후 미국 결핵학회에서 제정한 “결핵의 진단과 분류”를 기초로 대한결핵협회 중앙판독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최종 판정하게 된다. 척추측만증, 심장질환 및 기타 흉부질환도 판정표시하며, 판독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수검기관과 관할보건소에 공문(유선 및 기타 통신수단)으로 신속하게 통보할 예정이다.

결핵요소견자(요치료, 요관찰자-진단보류자)는 관할 보건소(수검기관 자체 정밀 검사시 제외)에서 무료 정밀검사(흉부엑스선 직접촬영, 결핵 균객담검사)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, 척추측만증과 심장질환 및 기타 흉부질환 등 비결핵 의심환자는 수검기관이 전문 의료기관에서 추가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.

글 | 대한결핵협회 검진과 †